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세미나

# 「토론문화 활성화」

일시 : 2023년 5월 12일 (금) 15:00

장소 : 선거연수원 제1강의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www.debates.go.kr](http://www.debates.go.kr)



# 진행 시간표

- ▶ 세미나명 : 토론문화 활성화
- ▶ 개최일시 : 2023년 5월 12일 (금) 15:00
- ▶ 개최장소 : 선거연수원 제1강의실
-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5:00~15:20 (20분)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개회	15:20~15:30 (10분)	국민의례
		인사말씀 : 조용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주제1	15:30~16:10 (40분)	<p>■ 대한민국 토론문화 현실과 활성화의 필요성(해외 사례 포함)</p> <p>발제 : 박현희(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p> <p>사회 : 최지향(이화여대 교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p> <p>토론 : 손성진(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학부 대상), 양현모(리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주승(디베이트포올 대표), 박성순(배재대 교수), 한서영(디베이트코리아 사무부총장), 김은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획팀장)</p>
-	16:10~16:20	휴식
주제2	16:20~17:10 (40분)	<p>■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의 역할</p> <p>발제 : 이호은(청운대 교수)</p> <p>사회 및 토론 : 주제1과 같음</p>
종합토론	17:10~18:00 (50분)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폐회	18:0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세미나

# 대한민국 토론문화 현실과 활성화의 필요성

(해외 사례 포함)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한국의 토론문화 현실과 활성화의 필요성

박현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문화 활성화 세미나>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선거연수원 본관동 1강의실

## 차례

- I. 토론 문화 현황과 진단
- II. 토론 문화 활성화의 필요성 :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 III. 어떤 토론 문화인가? 심의민주주의론을 향하여
- IV.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토론대회 현황과 평가
- V. 결론 :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질문

## I. 토론 문화 현황과 진단

1.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 : 미국, 프랑스, 한국
2. 온라인 토론 문화
3. 토론대회
4. 한국의 토론

##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의 기능

1. 민주적 정치 과정과 제도
2. 심의민주주의의 확대
3.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단일 형태로선 최대의 선거 캠페인 이벤트
4. 합법성과 정당성 확보: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 제시
5. 의제 설정 6. 능력과 자질 검증 7. 이미지 형성
8. 선유경향 혹은 밀착 효과
9. 유권자 교육 효과
10. 당락의 분수령

이상철(2011). "2008년 미국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보고서, 『외국의 선거방송사례연구』 (5쪽)



##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 개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총 4건

회차	개회일시	개회장소	토론주제	토론자	사회자
초청1차 (대선)	2022. 2. 21. (월) 20:00 ~ 22:00	MBC 스튜디오	경제분야 1.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2.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윤석열(국민의힘) - 심상정(정의당) - 안철수(국민의당)	박경주 (MBC아나운서)
초청2차 (대선)	2022. 2. 25. (금) 20:00 ~ 22:00	SBS 스튜디오	정치분야 1. 권력 구조 개편 2.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윤석열(국민의힘) - 심상정(정의당) - 안철수(국민의당)	핀상욱 (SBS앵커)
초청3차 (대선)	2022. 3. 2.(수) 20:00 ~ 22:00	KBS 스튜디오	사회분야 1.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2. 인구 절벽 대응 방안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윤석열(국민의힘) - 심상정(정의당) - 안철수(국민의당)	박태서 (KBS해설위원)
초청 외 (대선)	2022. 2. 22. (화) 23:00 ~ 2. 23.(수) 01:00	MBC 스튜디오	후보자공약발표	- 오준호(기본소득당) - 허경원(국가혁명당) - 이백윤(노동당) - 옥은호(새누리당) - 김동연(새로운물결) -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 조원진(우리공화당) - 김계연(진보당) - 이경희(통일한국당) - 김민찬(한류연합당)	차미연 (MBC아나운서)

1차 토론 : 시청률 32.753%

2차 토론 : 시청률 20% 초반

3차 토론 : 시청률 33.2%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MBN·TV조선),  
보도전문채널 2곳(연합뉴스TV·YTN) 등  
총 9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 개요

<http://debates.org> 참조

	후보	일시/ 장소	토론 형식	시청자수
1차 대통령 후보 토론	Joe Biden (D) 과 Donald J. Trump (R)  (모든 주제)	2020년 9월29일 오후 9시-10:30/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and Cleveland Clinic	-후보들이 연단에 선 채 90분간 -15분씩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주제는 사회자가 사전에 선택하고 발표. -각 부문은 질문으로 시작, 각 후보자는 2분간 답변 -사회자는 각 부문의 균형을 맞춤	7천3백10만 명
부통령 후보 토론 토론	Kamala Harris (D) 와 Mike Pence (R)	2020년 10월 7일 오후 9시-10:30/  The University of Utah	-후보자와 사회자가 착석한 상태에서 90분간의 토론. -약 10분씩 9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각 부문은 질문으로 시작, 각 후보자는 2분간 답변. -사회자는 각 부문의 균형을 맞춤	5천 7백 9십만 명
2차 대통령 후보 토론	Joe Biden (D) 과 Donald J. Trump (R)	2020년 10월 22일 오후 9시-10:30  Belmont University	-후보들이 연단에 선 채 90분간 -15분씩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주제는 사회자가 사전에 선택하고 발표. -각 부문은 질문으로 시작, 이후 각 후보자는 2분간 답변 -사회자는 각 부문의 균형을 맞춤	6천3백만 명

## 2016년 대선 토론 힐러리 대 트럼프

- TV토론 직후 뉴욕 타임즈가 정리한 팩트 체크 결과에서는 클린턴보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폴리티 팩트 역시 트럼프의 주요 발언 260개 중 185개가 '대부분 거짓', '거짓', '완전한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클린턴의 255개 중 71개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 [미국대선 첫번째 TV토론: 주제·진행방식·현지반응·주장의 진위여부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03

## 프랑스

- 프랑스의 선거방송 토론은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지 않음.
- 60년대 이후 텔레비전이 중요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방송토론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의 한 양식
- 1974년 이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자간 텔레비전 방송토론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정치 공론장 기능 담당
- 정치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방송토론은 텔레비전 채널의 고유한 편성권에 속함으로써 특정 정치 집단이나 권력기관 혹은 행정 기관에서 개입할 범위를 넘어섬.
- 출처: 박태순(2011), "2007 프랑스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연구』

〈표 1〉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 텔레비전 방송토론 역사 개괄

년도	후보자	사회자	시청자 수
1974년 5월 10일	-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Valéry Giscard d'Estaing) - 프랑스와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 알랭 듀아멜 (Alain Duhamel) - 자끄린 보드리에 (Jacqueline Baudrier)	약 2,500만 명
1981년 5월 5일	-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 장 브와소나 (Jean Boissonnat) - 미셸 코따 (Michèle Cotta)	3천만 명
1988년 4월 28일	- 프랑스와 미테랑 - 자끄 시락(Jacques Chirac)	- 엘리 바니에 (Elie Vannier) - 미셸 코따 (Michèle Cotta)	3천만 명
1995년 5월 2일	- 자끄 시락 -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 알랭 듀아멜 (Alain Duhamel) - 귀욤 듀랑 (Guillaume Durand)	1578만 명
2002년	자끄 시락이 장마리 르 페과 토론회를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함	극우정당 FN의 당수 장 마리 르 페이 2차 투표에 진출함에 따라 자끄 시락 과 대결하게 됨	
2007년 5월 3일	- 니콜라스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 세골렌 로와얄 (Ségolène Royal)	- 파트릭 푸아브르 다르보 (Patric Poivre d'Arvor) - 아를렛 샬보 (Arlette Chabot)	3천만 명

- 2012년 5월 2일 올랑드 대 사르코지  
2000만명 시청
- 2017년 TV 토론회 마크롱과 르펜후보  
토론 시청자 1천650만명  
(48%, Le Monde, 2017.3.2, 최고시청률 )  
응답자 43%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받음.
- 2022. 4.20일 마크롱과 르펜후보 토론  
  
1천560만명이 시청.

출처: 박태순(2011), "2007 프랑스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연구』

## 프랑스와 한국의 대선 방송 토론의 차이

- 프랑스 대통령 후보 방송 토론은 후보자, 방송사 그리고 유권자 간에 암묵적으로 맺어진 관행과 하나의 정치 문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
- 우리나라의 후보자 방송토론은 공식선거법에 의해 제도화 되어,공식적인 선거운동의 방식이 됨.
- 프랑스와는 달리 후보자 방송 토론이 다양한 의제 선정, 명확한 규칙 등으로 인해 토론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가는 모습. 이로 인해 방송토론이 이를 주체하는 기관을 위한 토론인지, 방송을 위한 토론인지 혹은 진정으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위한 토론인지가 매우 모호함.
- 출처: 박태순(2011), "2007 프랑스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연구』

## 한국 대선 토론에 대한 국민의견 네거티브 공세/ 일방적 주장

- 세 차례의 토론을 모두 시청했다는 박성준(26)씨는 정책 비전이 아닌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한 토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선거 막바지까지 대장동 이야기를 들으니 피로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런 문제 듣자고 유권자들이 시간 내서 토론 시청하는 거 아니지 않나. TV토론의 본질이 흐려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김지연(28)씨는 “이럴바에야 경제, 정치, 사회 분야 뭐하러 나눠서 토론하나. 대장동 문제로 두 후보가 싸운 것 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박경진(25)씨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타이머가 울리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후보자들끼리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속마음을 들여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탓에 질문도 답변도 허공만 맴도는 느낌이었다”고
- 이지윤(23)씨는 “상대가 공격을 하면 반박과 제반박이 오고 가는 게 토론인데 대선 토론은 서로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끝나 한숨이 나왔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42806632259712>(이데일리등록 2022-03-03 오후 10:31:52 /수정 2022-03-04 오전 10:08:29 이연서 기자

## 한국 대선 토론에 대한 국민 의견 대선토론 후기: 정보 전달의 미흡

- 김예지(26)씨 : “공정성 측면에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안다”라며 “하지만 이런 딱딱한 규칙이 결국 후보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 같다”
- 정유진(26)씨: “앞으로 TV토론이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바뀌지 않으면 굳이 찾아 보지 않을 것 같다. 후보들이 상대 헐뜯기보다 자기 공약과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
- 해당 콘텐츠에서는 삼프로TV의 진행자 세명이 대선 후보들을 각각 만나 1시간 30여분 동안 질의응답했다. 긴 호흡의 영상임에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후보의 생각과 국정 운영 비전을 심도 있게 들여다 봤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가 호평했다. 3일 기준 이재명 후보의 영상이 700만 회, 윤석열 후보 365만 회, 안철수 후보 175만 회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달하는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 교수는 “기존의 방식에 추가적으로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패널을 불러 분야별 심층 정책 토론을 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중파 방송사에서 유튜브 콘텐츠가 대선 후보자를 다룬 방식을 벤치마킹해 얼마나 후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할 지에 방점을 놓는다면 현재 TV 토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42806632259712>(이데일리등록 2022-03-03 오후 10:31:52 수정 2022-03-04 오전 10:08:29 이연서 기자

## 한국의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 평가

- 1)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 되거나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부족
- 2) 매체 다양화에 따라 TV 외 매체 활용 방안 고려
- 3) TV 토론 형식의 다양화 방안 필요성, 시청자들이 후보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 회차에 따라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4) 네거티브 공방전 가열, 이미지 정치로 경도될 가능성 큼
- 5) 거짓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시스템 요구
- 6) 대통령 방송 토론을 토론하다(이후 공론장의 확산 문화)

## 2. 한국의 토론 문화 – 전문가 의견

### 1) 다름과 차이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태도

강치원 교수: 우리 사회는 '다름'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짧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기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좀 다르면 미움·경계심·증오와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중간 생략]우리 사회 저변에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주류에서 벗어난다'든지 '왕따당한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사고가 자유롭다는 대학생들조차도 자기 주장을 말할 때 당당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가치관이 편향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중간 생략] 내 생각과 다르다면 체계적으로 반박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저쪽은 적이니 이야기 들어볼 것도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2) 토론에 대한 닫힌 자세 -토론의 가치 제고 필요(자신의 오류가능성 인정하고 토론으로 가치와 의견형성)

홍세화=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 때 결선투표 직전에 벌이는 방송토론회가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의식을 형성하는데 토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부족하고, 토론에 대해 열린 자세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 '한국의 토론문화' 를 토론한다 : 사설 : 사설, 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http://hani.co.kr))
- '원탁토론아카데미' 대표인 강치원 교수(강원대)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소장인 허경호 교수(경희대), 홍세화(한겨레)

## 2. 한국의 토론 문화 – 전문가 의견

### 3. 합의 논리, 공공성 인식 낮음,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육

- 흥=토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합의 논리'가 관철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합의 논리가 통용이 되고, 반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일제시대와 분단을 지나오면서 '나와 다름'을 서로 부정하기만 해온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와 반민주, 민주와 독재는 서로를 끝없이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거죠. 사람들의 의식은 어렸을 때 독서와 토론, 자기 성찰이 아닌, '이데올로기 주입'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주입된 의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고집하고 있고요.

### 4. 감정적 기질- 냄비근성

강: 한국인들의 감정적 기질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토론을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토론이 한번 붙으면 감정이 격해져서 금방 욱설을 하거나 비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 또 금방 식어버리죠. 이른바 '냄비근성'이예요

- '한국의 토론문화' 를 토론한다 : [사설 : 사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원탁토론아카데미' 대표인 강치원 교수(강원대)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소장인 허경호 교수(경희대), 홍세화(한겨레)

## 2. 한국의 토론 문화 – 전문가 의견

### 5. 주입식 교육과 질문하기 토론 보다는 오지선다형 평가

홍 세화: 스피치노자가 말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너무 단단히 굳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야 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스스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니 토론 자체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 견해를 밝히고 싶을 때는 인터넷 공간으로 가서 일종의 '발설행위'를 합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 욱설을 해대고 ...

- 강: [중간생략] 한 사회의 교육 평가 시스템의 수준은 그 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수-교수 양성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입시에서도 오지선다형으로 오웬아르 카드가 평가합니다. 교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고급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독일에선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거쳐 사회에 나갈 때까지 사람을 평가할 때 '고르기'란 아예 없습니다. 주관식·단답형이나 학술형·서술형·구술형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뽑는 거의 모든 과정이 오지선다형입니다. 주관식·단답형·서술형·구술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이게 바로 토론문화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분리된 4가지 과정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토론입니다. 토론식으로 연구하고, 토론식으로 교수(타칭)하고, 토론식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것은 가르친 사람이 평가할 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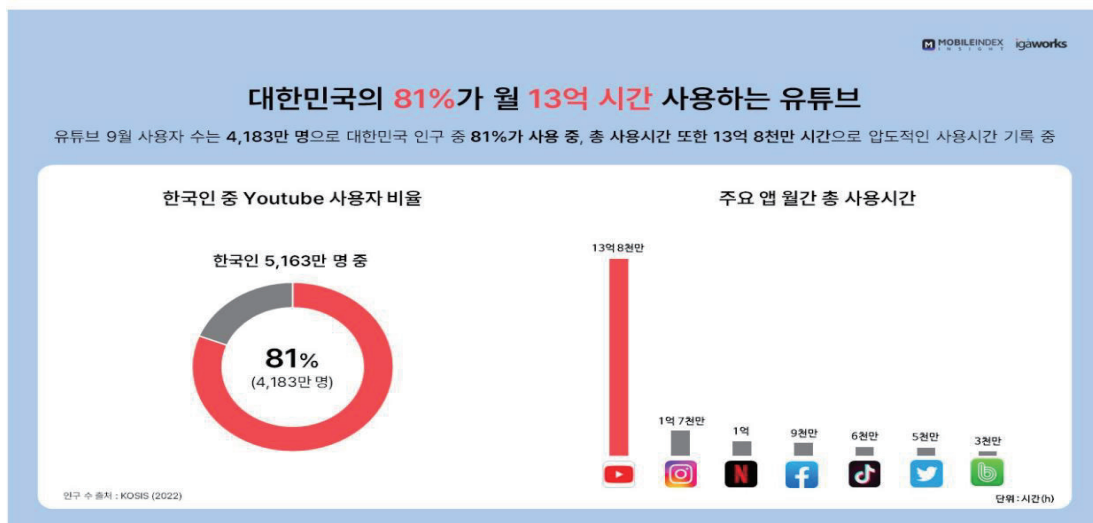
- '한국의 토론문화' 를 토론한다 : [사설 : 사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원탁토론아카데미' 대표인 강치원 교수(강원대)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소장인 허경호 교수(경희대), 홍세화(한겨레)

## 2. 한국의 토론 문화 – 전문가 의견

### 6. 국회, 기업, 방송 토론 등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토론문화

- 허: ‘토론문화’ 하면 그 상징이요 전형의 공간이 **국회**죠.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이든 어른이든 ‘국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싸움이요 드잡이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토론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 생산성을 지향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비생산적 토론의 전형으로 비치는 건 정말이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 허: 보통 **기업문화**라고 하면 ‘왕회장’이나 ‘제왕적 총수’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이런 문화 속에서 총수가 비전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되지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문화도 토론문화 쪽으로 가야합니다.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용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기업·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특히 생산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 [‘한국의 토론문화’를 토론한다 : 사실 : 사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원탁토론아카데미’ 대표인 강치원 교수(강원대)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소장인 허경호 교수(경희대), 홍세화(한겨레)

## 3.1 온라인 매체 영향력: 유튜브 사용 기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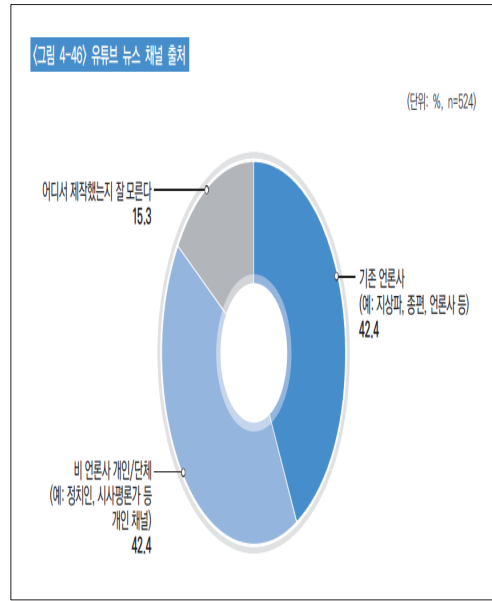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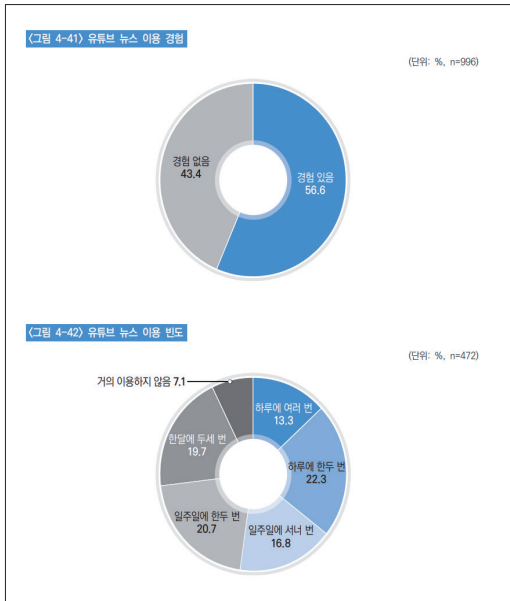
### 3.1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 -토론문화

- 모바일인덱스 분석 결과, 2022년 9월 '유튜브(YouTube)' 앱 사용자 수(MAU)는 4183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약 5163만 명 중 81%가 사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6700명 중 72%가 OTT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선호하는 채널 1위는 유튜브(66.1%).
-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CPO) 닐 모한은 2020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

### 3.1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 -토론문화

- 필터링 버블: 미국 시민운동가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가 제시한 개념.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
- 필터링 버블은 확증편향 문제 발생
-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은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 유튜브를 통해 방송사·종합편성 채널 등 언론사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42.4%.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작한 유튜브 뉴스를 본다는 응답도 42.4%
- 유튜브 이용자 중 뉴스를 보는 이용자는 56.6%. 그 중에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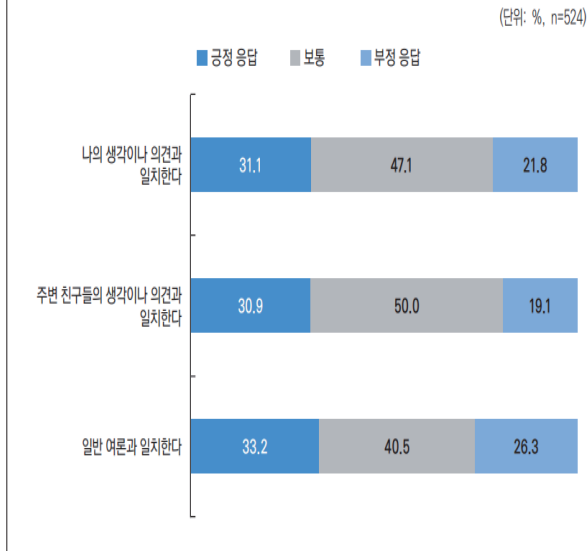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125쪽/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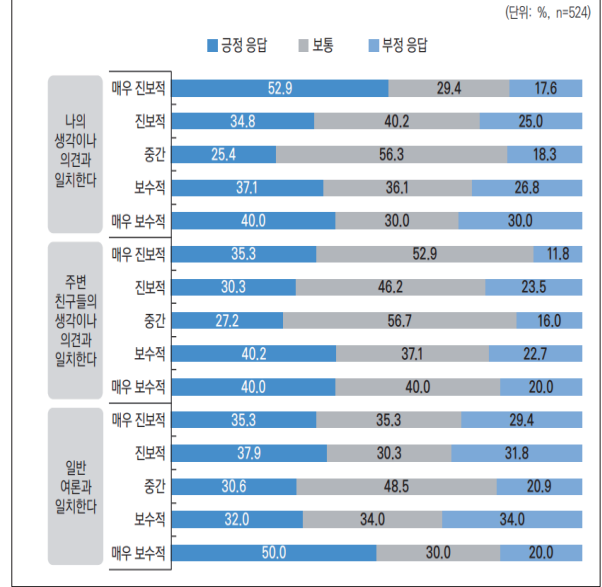
### 3. 1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 -토론문화

- 유튜브 뉴스 보도 시청자에게 유튜브 뉴스가 자기 자신, 주변 지인, 일반 여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물었을 때,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0%대로 나타났다.
- 정치 성향에 따라 분석결과. (여론과 내 의견의 일치정도)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는 52.9%가 내 생각이나 의견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도 40.0%가 내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한다고 인식했다. 일반 여론과는 50.0%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응답자는 25.4%만이 내 생각이나 의견과 비슷하고, 30.6%가 일반 여론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림 4-49〉 유튜브 뉴스에 관한 생각이나 의견 일치 정도



〈그림 4-50〉 정치 성향에 따른 유튜브 뉴스에 대한 의견일치도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132쪽/ 133쪽

## 3.2 온라인 토론 문화의 문제점

### ○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방해하는 온라인 문화의 특성

- ✓ 원하는 지식·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자발적 편식, 부당한 강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집단 분극화와 감정적 집단정체성은 대중의 감정적 폭발을 유도하고 여론을 호도함.
- ✓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온라인 활동가는 오프라인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 도전하며, 편향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함.
- ✓ 선정적·극단적 내용을 심화·확산시키는 온라인의 구조 때문에 명예훼손과 같은 침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의 왜곡과 재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방법의 부재는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음.
- ✓ 네티즌 스스로 평판체계를 만들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토론 교육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참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 [보고서]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kisti.re.kr)

## 3.2 온라인 토론문화의 문제점

### ○ 포털사이트 토론장

- 인신공격, 개인정보 노출, 비방, 욕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과 일방적인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 조직적인 게시글 등록과 같은 극단적 의견표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토론문화를 해치고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음
- 자신 또는 집단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보제공의 주체에 대한 의도적 사칭은 이용자 간의 신뢰를 해치고 있음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보고서](#)]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kisti.re.kr](http://kisti.re.kr))

## II. 토론 문화 활성화의 필요성 : 정치적 측면

1. 한국의 토론 정치의 전통
2. 한국의 토론 정치의 과제 :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서 화합과 수용에 입각한 공동선의 정치로
3. 한국정치의 과제: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1. 한국의 토론 정치의 전통

- 삼국시대 - 합의주의 정치, 신라의 화백회의, 백제의 정사암 회의, 고구려의 제가평의 혹은 군공회의
- 고려 태조 왕건의 소통 정치
- 조선시대- 유교적 공론정치/ 국왕과 학자 관료 간의 소통을 보장하는 경연제도/ 학자관료의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관제도(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조선왕조 말-유교적 공론장 퇴화
- 해방이후- 분단국가 수립과 전쟁으로 반공이 배타적 지배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다원주의적 소통 배제, 억압됨
- 군부권위주의 독재 하에서 강압기구와 긴급조치에 의해 민주적 소통 억제

· 참조: 임혁백(2011)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 1. 한국의 토론 정치의 전통

## ❖민주화 이후

1) 분단구조가 고착되어 여야, 지역, 계층 간에 불신, 분열, 대결구조 양산. 타협과 협상보다는 배제, 반목, 대결의 정치가 지배.

2) 유교적 가산주의(patrimoniakism), 연고주의와 다원주의 소통 부재

- 차이를 인정하는 데 인색, 혈연집단과 연고집단 내에 갇힌 신뢰의 반경. 타집단의 배제에 근거한 결속
- 화해와 통합을 모색하는 다원주의적 소통에 미숙
-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 → 지역적 대결구도

• 참조: 임혁백(2011)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 2. 한국 토론 정치의 과제 :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서 화합과 수용에 입각한 공동선의 정치로

- 대의민주주의의 선호집합적인 다수결의 결정은 공동선을 창출을 위한 정당성을 보증하지 못함. 다수의 결정이 옳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독재 우려(효율적이지만 힘에 의한 정당성 확보)
- 절차에 따른 정당성 확보(절차주의): 당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함으로써 정당화의 근거 마련. 다수결 결정 이전에 토론, 협의, 설득이 중요
- 갈등과 배제가 아닌 상호존중의 자세로 합리적 논거로 토론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토론 정치

## 3. 한국 정치의 과제: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심의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시민, 시민과 동료 시민간에 대화, 토의, 토론, 심의, 상호 이해,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나가는 민주주의이다.
- 심의민주주의는 '투표 중심'의 사적 이익의 정치를 비판하고, '토론 중심'의 정당성 표방의 정치를 주창한다.
- 한국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토론문화, 즉 공론장 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
-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문제가 폭력적 수단이나 평화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한다는 "에티켓사회"(etiquette society)가 형성되어야한다(하버마스, 2001: 100-117; 이광주, 2009: 445-473).

### Ⅲ. 어떤 토론 문화인가? 심의민주주의론을 향하여

#### 1. 심의(deliberative) 민주주의의 현실문제 인식

#### 1. 1 심의(deliberative) 민주주의의 현실 문제 인식 -롤스의 합당한 다원주의

- 다양성→ 갈등가능성→ 평화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
- 롤스(Rawls) :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등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리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간에 질서정연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각하게 상반되지만 그러나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입헌적 정체의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중첩적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치관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Rawls, 1993/1998, p. xxxii)

- 사회적 지위, 계급적 위치 또는 직업, 민족, 성, 인종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판단의 부담에서 오는 갈등

## 1.2 심의 민주주의의 현실 인식 하버마스(Habermas)

- Habermas(1987/ 2006b)는 사회를 생활세계(가족, 친구, 학교 등 일상 생활의 장)와 체계(국가와 경제 체계)로 구분. 전자는 도덕적 의사소통행위를, 후자는 행정권력과 화폐권력이 작동하는 곳으로 도구적 합리성(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적 행위)이 주를 이룬다.
- 하버마스는 체계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의 합리화와는 별개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생활세계를 침해하고 왜곡하며 축소시키는 문제, 즉 ‘생활세계의 식민화’(the colonization of the life-world)의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Habermas(1987/2006b, pp. 546-547).
- 체계의 도구적 합리성은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사회성원들이 수용할만한 정당성의 기반을 상실하고 있기에 중대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

출처: 박현희(근간), “심의민주주의 교육토론모형“, 『화법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 2. 하버마스의 정당화 기반으로 담론 윤리

- 하버마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권력이나 행정권력으로 대변되는 도구적 합리성 대신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시민들이 수용할만한 정당성의 기반을 구축
- 하버마스는 정당화를 위한 **담론윤리 원칙**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 1) **법규범적 담론에 적용되는 ‘담론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담론의 참가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만이 타당하다.”(Habermas, 1992 /2000, p. 161)와,
  - 2) **도덕규범에 적용되는 ‘보편화의 원칙’**으로 “개인의 이익과 가치 지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예견 가능한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오직 그 경우에만 타당하다.”(Habermas, 1992 /2000, p. 603).
- 이 두 가지 원칙은 사회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당화의 원칙으로 사회통합의 주요 원리를 구성한다.

출처: 박현희(근간), “심의민주주의 교육토론모형“, 『화법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 3. 하버마스 토의 정치

- 심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체계의 식민화로 인해 상실된 의사소통적 이성애 기반한 사회통합의 연대력을 회복시켜, 화폐와 행정권력 등에 대항해 생활세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권력들 간에 새로운 균형을 모색 (Habermas, 1990/2001, 41쪽).
-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공론장에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의견은 제도화된 의회와 심의기구들의 토론에 영향을 미치고, 의회내·외의 토론을 통해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견 및 의지 형성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적 권력은 입법절차를 통해 행정 권력으로 전환된다.

### 4. Gutmann과 Thompson(1996, 2004)

- Gutmann과 Thompson(1996, 2004)에 따르면, 심의민주주의가 도덕적 불일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의민주주의의 목적에서 기인한다.
- 첫째, 심의민주주의는 “합의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합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Gutmann & Thompson, 1996, p. 42) 이로써 심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심을 가진 집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 둘째,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이슈에 대해 ‘**공공성을 지향하는(public-spirited)**’ 시각을 고취시키고자 한다(Gutmann & Thompson, 2004, p. 10).
- 셋째,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 심의민주주의는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Gutmann & Thompson, 2004, p. 11).
- 넷째, 불완전한 이해에 대해 심의민주주의는 **자기교정(self-correcting)의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한다(Gutmann & Thompson, 2004, p. 12). 심의가 도덕적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해도 자기교정적 능력으로 미래에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Gutmann & Thompson, 1996, pp. 43-44).
- 출처: 박현희(근간), “심의민주주의 교육토론모형“, 『화법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 5. 심의민주주의에서 토론 원칙

Gutmann & Thompson, 1996

- 토론(심의, 토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놓인 공동의 상호 소통적 맥락에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 소통이다. 심의는 참여자들의 선호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용가능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의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고 변환하는 과정.
- 상호성(reciprocity), 공개성(publicity),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 상호성은 심의의 맥락에서 사과의 과정을 규제하고, 공개성, 책임성, 기본적 자유, 기본적 기회, 공정한 기회 등 상호 정당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원칙들을 필요로 한다(Gutmann & Thompson, 2003, pp. 34-35). 공개성과 책임성은 심의의 절차를, 기본적 자유, 기본적 기회, 공정한 기회는 심의의 결과로서 내용을 구속하는 원칙들이다.

## 5. 심의민주주의에서 토론 원칙

**1) 상호성:** 상호 수용할만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기 의견의 조정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최선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원칙이다. Gutmann & Thompson(1996, pp. 53-57)에 의하면, 심의민주주의의 주요 원리인 상호성은 시민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들이 유사한 동기로 그 근거를 수용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즉 집단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이나 정책이, 그 법과 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수용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당화’가 가능할 만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Gutmann & Thompson, 2003, p. 33). 상호성 원칙은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제시와 더불어 경험적 근거들이 신뢰할만한 일관성을 갖추어 상호 수용가능해야 함을 요구한다(Gutmann & Thompson, 1996, p. 53).

## 5. 심의민주주의에서 토론원칙

2) **공개성**은 “상호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수의 근거를 공유하고 가치의 확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입장의 변화를 추구”한다(Gutmann & Thompson, 1996, pp. 100-101). 심의민주주의에서 정치가와 관료와 시민들은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Gutmann & Thompson(1996, p. 101)에 의하면, 공개성은 시민들이나 공직자가 자기 의견을 교정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심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각자 입장과 정당화 근거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교정하고 서로 수용할만한 최선의 의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5. 심의민주주의에서 토론원칙

3) **책임성**: 심의에 의한 결정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특히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혹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그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utmann & Thompson, 2004, p. 135). 심의민주주의에서 심의에 의해 형성된 법과 정책은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만한 이유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은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에 의한 결정이 도덕적으로 최선의 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tmann과 Thompson(1996)은 **4)기본적 자유, 5)기본적 기회, 6)공정한 기회를 심의 내용의 주요 요건으로 제안한다.** 심의의 내용을 구속하는 이 세 가지 원칙들은 제시된 의견들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규범을 갖춘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한다(Gutmann & Thompson, 1996, p. 17). 기본적 자유는 “신체적·정신적 정체성을 보호하며 기회의 이용과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Gutmann & Thompson, 199, p. 203), 기본적 기회는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공정한 기회는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한 재화 분배의 원칙”을 실행해야 함을 의미한다(Gutmann & Thompson, 1996, p. 217).

## 6. 심의민주주의: 선호의 집합이 아닌 선호의 변환 추구

- 각자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은 토론이나 심의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함.
- 심의민주주의의 강점: 모든 이가 합의한 절차에 의해 산출된 결과로 소수자도 인정. 사회 통합에 기여. 공동선 추구/ 정보 공유 및 지식의 공동 사용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하며 보다 나은 타당한 결정에 이르게 됨/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이해와 공동 합의를 추구. 높은 정당성 확보

## IV.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토론대회 현황과 평가

- 미국과 세계 토론대회
- 한국의 토론대회
- 토론대회 평가

## 미국 토론대회

- 의회식 토론 대회는 APDA(American Parliamentary Debate Association), NPDA (National Parliamentary Debate Association) BP(British Parliamentary), CUSID(Canadian University Society for Intercollegiate Debate)
- 상호질의식 토론 대회는 NDT(National Debate Tournament), SCEDA(Southwest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 칼 포퍼식 토론 대회는 IDEA(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출처: 이선영(2011, 148-150)

## 국제 토론 교육 연합(IDEA) (<http://www.idebate.org>)

- 국제 토론 교육 연합(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은 '열린사회(Open societies) 연구소'가 1999년 네덜란드에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각종 토론 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토론 교육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토론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병행
-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역대 토론 대회 주제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논제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등의 정책 주제와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대회를 후원.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포럼(Youth Forum)'인데 이 대회는 포퍼식 토론을 기반으로하여 30여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골고루 섞이도록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을 진행.
- 국제 토론 연합이 시도하는 대회 중에는 세계 온라인 토론 대회(World Online Debate Championships)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토론 대회이며 토론 대회가 지닌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누구나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참여 가능하고 주최측에서 토론 팀과 찬성과 반대의 역할을 정해 주고 각요일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거쳐 인터넷 상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매 주말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
- 이선영(2011, 148-150)

# 세계 고등학교 토론대회(WSDC)

## 2.2.2. 세계 개인 토론 연설 대회 (WIDPSC) (<http://www.widpsc.com>)

- 세계 개인 토론 연설 대회(World Individual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Championships)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988년 미국 북동부 지역학교 연합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옴. 세계 고등학교 토론 대회가 팀별 토론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이 대회는 개인의 토론 및 연설 역량에 초점을 둬. 5일에 걸쳐 4부문으로 나누어 대결이 펼쳐지는데 의회식 토론(parliamentary debate), 즉흥 연설(impromptu speaking), 설명하며 읽기(interpretive reading), 설득 연설(Fersuasive speaking or after-dinner speaking)을 종합하여 시상.
- 토론의 경우에는 의회식 토론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쟁점 도출, 논리력,위트, 순발력, 토론 내용 전개가 심사 기준으로 작용. 즉흥 연설의 경우에는 단어나 인용구절이 제시되면 2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가진 이후에 연설함. 설명하며 읽기는 소설, 산문 혹은 시의 구절을 청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읽는 것으로 인용 구절을 고른 이유나 의미 해석에 대한 논평을 포함.
- 이선영(2011, 148-150)

[표 1] 국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토론대회 현황 (2011년 9월 기준)

주최·주관	대회명	토론 방식	참가 대상	횟수	시작 연도	목적	비고
서울시 교육청	서울 고등학생 토론대회	원탁 토의, CED 변형	서울 고등학생	4	2008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표현력 신장	입론서와 토론 개요로 예선, 각 지구별 예선
성북 교육청	서울 중학생 토론대회	2:2토론 (입론·반론-취중발언)	서울 중학생	5	2007	논리적 의사전개와 올바른 판단력 함양	입론서와 토론 개요로 예선, 각 지구별 예선
서울시 교육청	서울 초등학교 토론대회	SCEDA초 등토론교 육연구회(개발)	서울 초등학교	8	2005	합당한 판단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원탁토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중·고등학생 토론대회	경기도 교육청식(CED 변형)	경기도 중·고등 학생	4	2008	공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입론서와 토론 개요로 예선, 각 지구별 예선
직지 독서토론 연구회	직지대 전국 학생 토론대회	직지 방식(CED (초·중등))	전국 초·중·고등학생	6	2005	직지성체요절에 대한 인식 제고, 토론 문화 활성화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CED 변형	전국 고등학생	8	2003	민주 시민 교육	

주최·주관	대회명	토론 방식	참가 대상	횟수	시작 연도	목적	비고
5.18 기념재단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원탁 토론 (9팀의 기초 연설과 자유 토론 방식제의 절의순환)	전국 고등학생	10	2002	5.18 민주유혈 투쟁 기념	2박으로 현장 탐사, 강의 및 민주화 프로그램 진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국 청소년 논술토론 한마당	자유 토론, 방정제과 공개 토론	전국 고등학생	12	2000	민주 시민 교육	2박으로 현장 체험과 민주와 관련된 강의 진행
대한민국 청소년 협의회	대한민국 청소년 토의토론대회	원탁토론, 자유토론, 해결책토론	전국 고등학생	4	2010	청소년 의회 활동 관리 리더십 함양	2014년부터 자기주장 발표대회와 함께 진행. 비정기적
인원 정책연구소	인원시 고등학생 토론회	구조연설, 자유토론, 맹목발	인원시 고등학생	1	2011	민주시민의식 함양	예산 토론 거쳐 본선 진행 학생 사회화 있음
한국기자협회·투게더데이	전국 초·중·고 학생 포럼 대회	포럼, 디베이트	전국 초·중·고 학생	1	2010	토론 문화 확산	리그인 거쳐 경선 진출 교양 교사 인증 대회로 표창 연수 과정 있음.
한국시민취약봉사중앙회	전국 중·고등학생 의회식 토론회	의회식	전국 초·중·고등학생	6	2006	미래의 지도자로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지도자역량 자립예양	4개의 예비 주재 중 추경 본선, 논제 선택, 지구대회 예선을 거침
세계화 교육재단	세계화 청소년 토론대회	발제·논박·경리	전국 초·중·고등학생	2	2010	이미 있는 시교와 토론 능력은 갖춘 글로벌인재양성	자기주장서 심사 후 예선 본선 거침 (전통기 심사하 최선된 논제 함양)
대한민국 청소년 협의회	자기주장 상제 의회식 토론회	자기 주장 상제 의회식	전국 중·고등학생	11	2000	토론 능력 함양	토론 능력 함양을 위한 토론회

주최·주관	대회명	토론 방식	참가 대상	횟수	시작 연도	목적	비고
바이오	전국 고교생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	CED 변형	전국 고등학생	2	2010	안전성 정보센터	현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과학적 소양 함양
은평 타임즈	은평고교생 의회식 토론회	의회식	은평고교생	2	2010	자치주장	미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적 함양 지도자적 자질배양
충북중부 매일신문	충북중부 학교대항 학생 토론회	원탁토론	충북중부 고등학생	2	2010	학생 사회화	미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적 함양
한양대	전국 고교생 토론회	원탁토론	전국고등 학생	1	2009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인 토론 문화의 확산	1회 대회 개최이후 정기토론 정기 토론회로 개최
승실대	전국 고등학생 토론회	승실대식(의회식 변형)	전국고등 학생	2	2010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인 토론 문화의 확산	독서력 감사, 논술문 심사 후 토론회로 진행
배재대	전국 고등학생 토론회	발제-논박-경리	전국 고등학생	1	2011	미래의 리더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	전국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참여
경민대	토론대회	CED 변형	경기도초 중·고등학생	4	2011	리더십 함양	논술문 심사 후 예선 본선 진행
숙명여대	전국 고등학생 토론회	숙명여대식(CED 변형)	전국고등 학생	6	2010	논리력 신장	신경자에 의해 1박 토론 캠프 진행. 독서력 감사, 논술문 심사 후 토론회로 진행
민주사관 고등학교	전국 중학생 토론회	민주사관식	전국 중학생	8	2004	합리적 의사소통인 논쟁적 토론 교육 활성화	3박으로 토론 교육과 강의 진행

이선영(2011, 148-150)

## 한국의 토론대회

- 한국의 토론대회의 경우, 주로 찬반 대립 토론모형으로 제비뽑기식으로 입장을 정함. 대표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대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1회-5회까지는 세다방식을, 6회부터 현재까지 자유토론 형식을 강화하여 변형된 대립토론방식을 활용함.
- 이외에도 민사고 토론대회,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거래열살 리기토론대회 등 다수가 있음.

## 토론대회에 대한 평가

- 현재 찬반 대립토론은 설득은 강조하지만 '자기 교정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서 정당성에 입각한 '교정 가능성'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교정 가능성'은 하나의 합의안 도출과는 전혀 다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타당한 반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다 나은 타당한 주장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용과 반대 그리고 의견의 교정 순서가 없음>
- 민주주의 사회에 서는 어떤 의견이 더 정당한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당성 경쟁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경쟁은 공공선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선을 향한 정당성 경쟁은 **진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2000)는 타당성 주장의 요건으로 진실성, 도덕성, 정당성, 이해가능성을 제시 한 바 있다. 어떤 의견에 대하여 진의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가며 논쟁할 수 있는 시민은 심의민주주의적 시민성과는 거리가 멀다. <찬반 입장 결정의 문제>
- 민주적 시민성의 요소로서 **공감적 이야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일반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논증적 타당성에 치우침
- 출처: 박현희(2018).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토론모형 구성방안, 사고와표현11(2)

## 결론: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질문

- 온라인 기반 (유튜브의 확장편향과 같은 문제적 양상) 의견의 대립과 감정적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학교교육에서의 주입식 교육과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현재 운영중인 토론대회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에 적합한가? 즉 심의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에 부합하는가?
-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용할만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 혹은 수용하여 자기의견을 교정할 수 있는 공공성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호성, 교정가능성, 타당성, 진정성 등)
- 선거 방송토론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이 수용할만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여하고 있는가?

## 참고문헌

- 박현희(근간). "심의민주주의 교육토론모형", **화법교수학습모형**,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현희(2018).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구성방안", 사고와 표현11(2).
- 오세욱, 송해엽(2019). 유튜브 추천알고리즘과 저널리즘,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
- 이선영(2011). "국내 외 토론 대회 현황 분석을 통한 토론 교육 발전 방안 연구", 화법연구 19
- 임혁백(2011). "한국에서의 불통의 정치와 소통 정치의 복원",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세미나
- 이상철, 범기수, 박태순, 최영돈 (2011).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연구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보고서](#)]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kisti.re.kr](http://kisti.re.kr))
- Gutmann, A., & Thompson, D.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mann, A., & Thompson, D. (1999). "Democratic Disagreement," in Stephen Macedo (ed.). *Deliberative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3-279.
- Gutmann, A., & Thompson, D. (2003). "Deliberative Democracy Beyond Process," in James Fishkin and Peter Laslett (ed.).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pp. 31-53.
- Gutmann, A., & Thompson, D. (2004).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2000).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역), 서울: 나남출판.(원서출판 1992)
- Habermas, J. (2006a). 의사소통 행위이론 1, 장춘익 (역), 서울: 나남출판.(원서출판 1981)
- Habermas, J. (2006b). 의사소통 행위이론 2, 장춘익 (역), 서울: 나남출판.(원서출판 198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세미나

#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이 호 은  
(청운대 교수)





#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이 호 은\*  
(청운대학교 교수)

## 1. 서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상설화되어 선거방송토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 관련 기능을 수행하면서 토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창설된 후 20년을 맞이하게 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자후보 방송토론을 개최하면서 선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왔다. 방송토론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개선하면서 이제 선거관리에서 공직후보자의 방송토론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토론회 개최와 함께 '토론'대회 개최와 각종 활동으로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5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출발점으로 각종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토론'은 이제 공직 후보자 토론회의 개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향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과 지속적인 임무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인식, 각 주체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선거관리에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맥을 함께 한다. 선관위가 선거관리와 함께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발생하는 것이

주제어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문화, 유권자, 수용 태도, 이용과 충족, 자기반영성, Q 방법론

\*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 h3838@chungwoon.ac.kr

그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은 이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 이는 선거 관련 독립기구로서 중요한 기능이다. 결국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새로운 역할과 소명감을 갖고 방송(토론)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체들과 연대하고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유권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함께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탐색적 과정으로서 본 발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대통령후보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의 토론을 인식하는 태도를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성과와 토론의 본질적인 기능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 태도의 설문 조사 결과는 연구자의 최근 2022년 발표 논문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였다.)

둘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 대회 개최와 교육, 후원, 실행 등을 담당하는 각 주체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의 입체적인 협업 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결과적으로 토론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방송토론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주목이 되는 특징은 ‘토론’이라는 다소 이성적인 구체적 현실을 ‘방송’이라는 감성적인 혹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의 미디어가 매개한다는 것이다. 방송토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1960년 미국의 대선 TV토론은 라디오 청취에서 우세했던 닉슨에 비하여 TV토론에서는 케네디가 우세하였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토론이 대중에게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편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미디어 이용과 선거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언론의 선거보도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한다(66%)”, “현장감 있게 보도 한다”(53.3%), “이해하기 쉽게 보도 한다”(50.3%) 등으로 답하여 언론의 선거보도가 신속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다(78.2%)”고 하였다.

TV토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TV토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후보 선택, 후보의 언어, 토론 형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다. 특히 TV토론 이후 지지율 변화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TV토론은 후보자들이 출연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다. 하지만 토론회의 타깃은 무엇보다도 유권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TV토론은 후보자 중심의 메시지 전달과 공정성에 집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수용자(유권자)의 측면에서 토론의 어떤 요소가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성과를 가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TV토론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다양한 수용 태도를 확인하는 질적인 연구는 향후 TV토론의 전망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TV토론회의 시청자(수용자)의 파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토론 활성화는 물론 선거방송토론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토론의 방향성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TV토론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kraus, 2000). 유권자들의 TV토론 시청은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이 직접 접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TV토론은 속의 민주주의의 확대이다(이상철, 2002).

한국에서 TV토론은 이전의 대규모 유권자들을 동원했던 고비용, 저효율의 ‘광장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저비용, 고효율 선거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정착시켰다.

### 1) 선행 연구

TV토론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형식 및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의, 방송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크게 TV토론의 영향, 토론 형식, 수용자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첫째로 TV토론의 영향(효과)에 대한 연구 경향이다. 초기 TV토론에 대한 관심은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연구를 촉발시켰다. TV토론의 영향력, 특히 후보 결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TV토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TV토론은 투표결정에 유용한 정보인 정당과 후보의 정책, 후보의 인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이강형, 2003; 정성호·이화행, 2006).

한편, TV토론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15대 대통령선거에서 TV토론 시청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강원택, 2003).

기존 연구에서 TV토론이 부동층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는 일부 밝혀졌다(정성호, 2003). 하지만 TV토론으로 인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여러 연구는 TV토론의 기능을 살펴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태도 강화, 재확인 등의 강화효과(reinforcement effect)로 보았다. 한편 유권자들의 TV토론 평가를 선별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TV토론의 발전에 대하여 라자스펠드(Lasarsfeld)는 1970년대 이전까지의 제한적인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던 연구와 다르게 정당에서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캠페인이 재편되는 변화가 매스미디어에 주목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TV토론의 관한 연구는 TV토론 형식과 수사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TV토론 형식에 관한 연구에서 제미슨(Jamieson, 1987)은 공동기자회견식 토론을 후보검증의 단점으로 지적하였고, 슈레더(Schroeder)는 직접토론형의 상호비방 가능성의 단점과 역동성의 장점을 기대하였다. 크라우스(Kraus, 2000)와 칼린(Carlin, 2002)은 미국 선거에 도입된 시민 포럼형 토론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22 대선을 맞이하여 한국의 경우도 시민 포럼형 토론 방식에 대한 참여형 토론 방식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도 TV토론에 대한 형식을 지적하는 주장과 연구가 많았다. 이종수(1997)는 TV토론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보의 질'로 규정하면서 선정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패널 형식을 제안하였다. 이진로(2002)는 사회자와 함께 전문가패널의 참여를 제시하였고, 임태섭(2000)은 미국의 경우 다양한 관점의 심층토론이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대결 중심 토론의 특징을 지적하고 정책위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혁남(2006)은 발언 시간이 부족하여 인신공격으로 인한 토론의 부재, 지루함을 지적하였다. 이준웅, 김관규, 구교태 그리고 최민석(2006)은 역동성의 부족을 근거로 시민 참여형 토론 방식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TV토론의 수사 연구 분야는 예비선거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후보자 TV토론을 대상으로 후보자 수사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의 수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전영란, 2007).

1980년대에 미국의 학자들이 TV토론을 분석하면서 출발한 수사 연구는 TV토론을 ‘의견과 사상의 충돌’의 장으로 보고 수사학적 분석 방법을 이론화 하였다. 라일리와 홀리안(Riley & Holian, 1981)은 후보자의 ‘공격과 방어’에 집중하여 1980년 대선의 레이건과 앤더슨의 TV토론을 분석하고, 마텔(Martel, 1983)은 공격(attack), 방어(defense), 주장(sell), 무시(ignore), 동의(me too) 등 다섯 가지 토론전략을 제시하였다. 베노이트와 하스콕(Benoit & Harthcock, 1999)는 1960년 닉슨과 케네디의 ‘대토론’을 주장, 공격, 방어의 수사 전략을 통하여 분석하고, 주장은 선호도를 높이고, 공격은 상대방에 대한 선호도를 감소시키고, 방어는 공격받는 후보자를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기호에 대한 체계 즉 영상 문화에 대한 탐색과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 현실을 재생산하는 영상 구성 형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이호은, 2009).

셋째로 TV토론의 수용자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TV토론 연구는 초기의 규범적인 연구, 진행방식 등의 연구 논의에 머물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판단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TV토론을 시청한 시청자의 인식과 유형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드럭맨(Druckman, 2005)은 ‘대토론’에서 케네디와 닉슨의 수용자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연구하여, 수용자에게 도달하는 이미지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후보의 성격을 수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칼린(Carlin, 2002)은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는 기존 지지후보자에 대한 지지 강화의 형태를 보이고, 부동층이나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는 지지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후보의 경쟁이 치열할 때 TV토론의 효과가 높다는 수용자 연구 결과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베노이트(2002)는 미국 대선 후보TV토론회에서 TV토론이 유권자의 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슈 현저성을 높이고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우진과 배진석(2018)은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정책보다는 후보자 간의 정치적 공방과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수용자 연구에서는 재확인효과(reaffirmation)를 주로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TV토론은 유권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보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



한다(강원택, 2003). 특히 수용자의 후보에 대한 태도와 TV토론의 연관성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이준웅(1999)은 TV토론을 통해 태도변화 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적 강화의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은영(2002)은 유권자에게 TV토론은 지지 후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당파성에 의존하는 경우 미미한 태도를 보이고 반대일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유권자와 TV토론의 수용 태도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TV토론에 대한 수용자의 분석은 주로 후보자의 이미지 전략과 효과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이미지와 지지도 등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후보자의 발언과 이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살피는 것은 유용하였으나 과연 수용자의 측면에서 수용되는 다양한 후보자의 토론 요소들을 확인하고 요소 간의 입체적인 연관성을 찾는 질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의 주요 요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격과 환경에 맞추어 적용하여 왔으며 비교적 무리 없이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선행연구들은 TV토론과 관련하여 지지율 효과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후속 연구를 기대하게 하였다. TV토론이 제공하는 후보자의 이미지는 물론 태도, 차이, 정보 등 후보자의 토론을 통하여 전달되는 요소와 수용 인식태도의 관계에 대해 실제 수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토론위원회의 성과와 현재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 2) 토론의 수용과 기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본 발제에서는 방송토론을 공론장 으로서의 ‘토론’ 과 ‘방송(콘텐츠)’이 결합된 형태로 간주하여 수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과 ‘자기반영’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토론의 의미와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이종희(2011)는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선거방송은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론



장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 민주주의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종희는 “방송을 통한 토론은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축약적인 제한 요소와 함께 후보자의 외모와 말솜씨, 연기 능력이 정책이나 자질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호은, 2008)”라고 하였다.

## (2) ‘이론과 충족’ 이론

최근 다양한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방송의 시청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을 통한 시청 관습과 비중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TV시청의 변화와 이용행태의 변화는 방송토론의 전망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 체제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체제는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미디어 관습을 기반으로 중앙집중식의 송출과 가족 단위의 가정 내 수용, 계획된 흐름을 통한 콘텐츠의 제공이라는 속성이다. 이러한 방송의 속성은 시청자의 생활을 시,공간적으로 조직화하는 조건이었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특징을 모색하는 연구에는 주로 ‘이용과 충족’ 이론의 접근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김남두, 2020). 이용과 충족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 미디어와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미디어 이용에 대하여 밝히는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 연구는 다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에 기초하여, 특정미디어 혹은 콘텐츠의 선택과 이용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 행태를 탐구함으로써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기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루빈(Rubin,1983)은 TV시청동기를 긴장완화(relexation), 심리적 동반(companionship), 습관(habit), 시간보내기(pass time), 오락(entertainment),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정보(information), 감정적 고양(arousal), 일상회피(escape)의 9가지 동기로 보았다. 김현(2019)은 전통적인 방송 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다루는 이용과 충족 연구에도 정보, 오락, 사회적 동기(동반,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보내기는 중요한 동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변인은 특징 미디어와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동기 변인들로서 정보추구 뿐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추구, 심리적 동반 추구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3) 자기반영성 (self-reflexion)

자기반영성은 최근 콘텐츠의 수용 요인을 설명하는 콘텐츠와 수용자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작가가 스스로의 위상과 특성에 관심을 두면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실험하고 작품 안에 반영하는 성질을 말하기도 한다. 단순히 몰입하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대입하거나 성찰하는 태도를 말한다. 능동적인 수용자 혹은 작품과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토론문화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선후보TV토론회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근거로 수용태도를 확인하고 방송토론의 의미와 기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토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확인하여 협업체계를 통한 향후 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발제의 문제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TV토론회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통한 토론의 기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토론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대한민국 '토론' 생태계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4. 수용자와 토론의 기능

### 1) 연구방법

대선후보TV토론회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Q 방법을 사용하였다. Q 방법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기에 본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28개의 Q 표본을 이용하여 TV토론 수용자의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부록〉 참조). 모집단 수집을 위해서 심층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시행하였다. 모집단 구성을 위해 2022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문가 1인(방송 연구기관 박사)과 TV 토론을 시청한 언론인 2인(지상파 언론인 1인과 종편 언론인 1인)과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약 5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내외 TV토론 동향과 관련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나아가 Q 표본 구성에 반영하였다. 언론인 인터뷰는 TV토론 경험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면방식으로, 약 30분 진행되었으며, Q 진술문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이후 TV토론회 개최 이후 관련 선행 연구와 신문·잡지 기사의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11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적합성과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28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진술문 선정은 전문가 및 언론인 인터뷰와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신문기사, 방송프로그램, TV토론 분석 특집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TV토론 주요 이슈, 예를 들어, TV토론의 요소인 후보자의 정보, 태도, 쟁점, 후보 지지 여부 등의 요인 등의 내용을 균형 있게 포함하였다.

TV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22명이 참여하였고,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참여하였고, 1, 2차 토론회를 시청하고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참여하였다.

### 2) 수용 태도 유형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의 TV토론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유형의 성별 구성에서

는 제1유형은 남성 8명과 여성 4명, 제2유형은 남성 4명, 제3유형은 남성 1명, 여성 2명, 제4유형은 남성 2명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의 TV토론 중복 시청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1) 제1유형 : 확인·강화 형

제1유형은 TV토론시청이 후보자의 지지를 강화하고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후보자의 태도, 인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형식의 지루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4인의 후보가 출연하는 토론회의 형식으로는 지지 후보의 노출이 부족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한편 TV토론이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나 정보 전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TV토론을 통해 지지후보자를 철회하지 않고 무엇보다 새로운 후보자를 지지하지도 않는 특징을 보였다.

결국 제1유형의 속한 응답자는 토론 이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 경우가 많았고, TV토론을 통하여 지지 후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각인하여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유형의 경우는 TV토론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태도 강화의 모습을 보였다.

[표 1] 제1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1.28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27
24	TV토론회는 형식에서 지루하였다.	1.26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41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28
20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01
23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29
3	TV토론회는 후보자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4
7	TV토론회는 파괴력이 있다.	-1.49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2.06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2.15

TV토론을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시청하는 이용 행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TV토론의 결과가 후보의 지지 강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다른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하고 TV토론이 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TV토론의 한계성과 함께 새로운 포맷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비교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부재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지지 후보가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후보자 간의 차이점 부각에 실패하여 후보 변경 등은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토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지지를 철회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제1유형은 TV토론은 선거에서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없고, 지지하는 후보를 확인하고 유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제2유형 : 정보·지지 형

제2유형은 TV토론 시청을 통하여 후보자의 태도, 이미지 및 철학, 리더십 자질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보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토론에서 정보뿐 아니라 토론 스타일을 통해 도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TV토론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하여 판단을 하려는 태도가 확인되었다.

TV토론을 통하여 후보자를 바꾸거나, 지지를 철회를 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TV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정보의 수준과 질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하지만 후보자의 표정과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도덕성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TV매체의 영향력을 볼 때 TV토론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 제2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82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36
14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	1.35
19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철학을 확인하였다.	1.34
1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하였다,	1.30
1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1.13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00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1.08
4	TV토론회는 선거에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1.30
2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1.38
23	TV토론회의 후보자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39

제2유형이 TV토론에서 후보자의 철학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뚜렷한 특징은 TV 토론이 지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었다. TV토론에서 후보자의 다양한 정보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태도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정보·지지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 (3) 제3유형 : 변화·추구 형

제3유형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자간의 대립과 시각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후보자 간의 대립구도를 확인하고, 토론의 내용을 통해 시각차를 확인하여 후보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TV토론이 후보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제3유형은 TV토론을 통하여 후보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후보자 선택에 기여하는 TV토론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돌을 통한 후보자의 대립이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제3유형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후보로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립에 대한 결과로 선거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제3유형의 응답자는 TV토론을 통하여 후보자의 말투, 몸짓 등의 태도를 통하여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지를 철회할 만한 변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표 3] 제3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geq$  | $\pm 1.00$ |)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
3	TV토론회는 후보자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
2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였다.	1.27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11
14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	1.02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02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11
2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1.11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33
20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52
4	TV토론회는 선거에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1.98

제3유형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자 지지율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후보를 지지한다는 진술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후보자의 대립구도에 집중하였다. 즉, TV토론의 역동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립과 충돌을 통하여 후보 간의 차이를 확인하지만 후보 선택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결국 **변화를 추구하지만 행동은 다소 유보하는 ‘변화 추구형’**으로 볼 수 있다.

#### (4) 제4유형 : 변화·수용 형

제4유형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태도와 자질(이미지)을 확인하고, 인격까지 확인하였다고 답하였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TV토론을 통한 후보 지지를 철회하였다는 것이다. 후보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후보자의 리더십 요소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지를 철회하였으나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답하여 선택에는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부동층이 TV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바꾸는 TV토론의 기능이 보고되었는데, TV토론을 통해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선택**



하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로 보고 될 수 있겠다.

특히, 제4유형은 후보자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두 차례의 TV토론에서 토론자는 유권자가 원하는 확실한 신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제4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83
1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하였다,	1.83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22
1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2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22
26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1.20
3	TV토론회는 후보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1.22
23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22
2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1.53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1.83

결론적으로 가장 변화가 큰 진술문 ‘후보지지 철회’이다. 이의 배경으로 확인되는 진술문은 ‘리더십 확인’이다. 부정적인 진술문을 정리하면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제4유형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변회수용형”으로 볼 수 있다.

[표 5] 유형 간 공통된 Q 표본과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0.78
9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0.20
2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0.94
23	TV토론회는 후보자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1.19

4개의 유형 간 공통점이 큰 진술문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이 TV토론의 장점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2시간의 토론시간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에 시간적 제약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TV토론에서 수용자는 정보 보다



는 태도를 볼 수 있거나 보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준비성이나 자질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간 공통된 진술문 중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것은 ‘대통령후보TV토론회는 후보자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를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즉, TV토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혹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3) 소결

이상의 유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공직 후보자 방송토론은 다양한 수용자에게 미디어를 통하여 후보자의 정보와 자질 등의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본질적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권자는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그동안 토론 문화를 제대로 잘 정착시킨 결과이다. 정보와 함께 감성적인 토론의 요소가 전달되었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토론은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후보자 토론회보다는 다소 출발이 늦었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토론 형식을 실험하면서 토론 형식을 천천히 개선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주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 것이 특징이고 성과이다,

또한 한국의 TV토론회의 수용자를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갖고있지만 나름대로 TV토론을 이용하고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텔레비전 콘텐츠로서의 한계와 효용성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방송토론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우수하고 성실하게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 5. 토론 문화 활성화와 협업

한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기관이지만 선관위의 선거관리 기능과는 차별적으로 선거 기간에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 행위와는 다소 다르고 선제적이며 매우 독립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은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251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적인 조직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민주주의 선거에 기여하였다. 특히 ‘토론’을 통하여 민주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회의 개최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개최하면서 토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창설과 함께 국민의 토론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대학생 토론 대회 등을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전국적인 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토론’이 되었다. 이는 토론 문화가 활성화 된 민주사회를 위하여 토론위원회가 담당할 일임에 틀림없다.

창설 20주년을 목도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은 ‘토론’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토론 개최의 정착 이후, 새로운 과제인 ‘토론’의 질적인 개선과 확대는 토론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그 역할을 기대하고 강요하게 되었다. 실천적 영역에서 각종 토론대회를 점검하고 각 주체들과의 협업은 중요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1) 주요 토론대회 개최 현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5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출발점으로 현재는 대상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행사로서 대표적인 토론대회이다. 이외에도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영토토론대회가 있다. 한편 오산시, 평창군 등의 지자체에서 평화 챌린

지,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등도 개최되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일보 등의 언론사 등의 사회통합토론대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19 민주혁명회의 대학생 토론대회 등도 매년 개최 되고 있다.

2023년에는 국회와 금융사, 구 단위의 토론대회가 예정되어 코로나 감염사태 해제로 인한 토론대회가 더욱 활발하게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2) 토론대회 주최 및 주관 주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대회 개최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토론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토론의 필요성이 확대된 결과인데 개최와 후원 등의 주체가 다양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함께 특히 육군사관학교, 성균관대, 서울대 등의 교육기관, 한국일보, 아프리카TV 등 언론 미디어 등 다양하다. 한편, 토론을 주관하는 디베이트코리아, 디베이트포올, 리얼커뮤니케이션 등의 전문사도 확인할 수 있다. 토론대회의 개최에 있어서 다소 독립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3) 참가 대상 및 토론 방식

다양한 토론대회의 대상 및 토론방식은 대부분 청소년, 특히 대학생이며 초등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대학생 중심의 토론대회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토론 대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토론 방식은 주로 CEDA 방식과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토론’ 교육과 다양성을 위한 장치가 다소 요청된다.

## 4) 토론 대회의 이슈

토론대회의 이슈와 과제는 토론 개최의 현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주최의 독립적인 개최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유사 대회의 동시 개최로 인한 비효

올성이다. 특히 정부의 기관이나 지자체의 동시 개최는 참가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대회의 참여 저조로 대회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둘째, 대회 토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표적인 방식은 주장과 검증,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오래되었고 다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토론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토론대회 참가자의 대상이 대학의 토론동아리 등에 한정적이어서 토론 참가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 5) 협업체계 구축 (소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대회를 초기에 개최하여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스스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소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단체와 지자체 등의 토론대회를 지원하여 왔다. 한편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토론대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 즉 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기와 형식 등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토론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우선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최 기관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참가자의 규모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개최 장소, 시기 등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유사한 대회의 경우는 연대하여 공동개최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토론대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현재 토론대회의 개최 방식은 행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주최와 개최의 주체가 나누어져 있으나 타 대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아쉽다.

한편 토론 형식과 평가 방식의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참가자인 대학생임을 감안할 때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회와 연구자의 참여로 토론 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회의 협조로 심사위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토론 전문 기관(업체)의 상호 협력으로 토론대회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토론대회 주최, 주관 기관의 상호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토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한계성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민/관/학/학회/단체의 협업 구축으로 ‘토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론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통한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전문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회 개최, 전국규모의 토론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확장된 위상과 업무를 요청받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확대를 넘어서 민주사회에서 가치 있고 도전적인, 확장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과정으로서의 ‘토론’ 활성화의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위상의 정립과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 방송토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확대

선거방송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공직자후보 선거방송토론회 개최의 고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를 위한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토론’ 분야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과는 차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통한 토론 문화에 대한 역할을 방송토론위원회가 전담할 필요가 있다.

### 2) ‘토론’ 문화 연구(연수)기능 확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연수 기능을 통하여 ‘토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적인 실천을 위한 역할이 요청된다. 특히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토론’ 연수 교육 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3) '토론'문화의 저변 확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창설 20주년을 맞아하여 '토론'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토론'을 (부)교과에 편성하여 토론 문화의 저변 확산과 민주주의 교육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토론' 수업을 편성하여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과정,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4) 선거방송토론의 3.0 버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자선거방송토론의 제도와 형식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나친 공정성에 기댄 기계적인 진행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토론의 형식을 과감하게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다소 독립된 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최적의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조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토론'을 선거방송토론회 개최와 토론대회 개최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7. 결론 및 제언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유권자(수용자)

본 연구에서 TV토론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지후보자에 대한 선별적 지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토론을 통하여 후보자의 철회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방송토론위원회의 그동안 성과로서 TV토론의 기능적 요소를 확인하는 대목이다. 한편 TV토론의 형식에 대한 개선의 부분도 확인이 되었다. 즉 TV토론 수용자의 태도 요소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성도 다소 확인이 되었다.

TV토론은 정보를 추구하는 현대 유권자에게 유용한 선거 이벤트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다양한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 속에서 시청자는 리더십의 다양한 자질을 각인하고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V토론을 통하여 유권자는 자율적으로 토론에 노출되고 있었다. TV토론을 통해 시청자는 정보, 오락, 사회적 동기(동반,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보내기 등 중요한 동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는 비교적 이용과 충족에 충실한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효과 연구에 집중하는 지금까지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지형에서 본 수용태도 연구 결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개념으로 ‘이용과 충족’ 이론으로 일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자간 TV토론은 응답자들이 밝혔듯이 후보의 자질이나 태도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다. 미국과 같이 양자 토론이나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의 수가 조정된다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 2) 토론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노력

### (1) 토론 교육의 제도화

소니아 리빙스틴(2014)은 미디어 교육을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보았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이용자를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인 위치로, 수용자에서 참여자로,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토론 과정을 교과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이는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등의 입체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제 ‘토론’ 등의 교육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학문 공동체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교과로서 토론 영역은 필수적인데 해외의 미디어교육의 제도화된 가이드와 교육과정 등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미디어교육을 공교육의 핵심 과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설립된 미디어교육 센터에서 실시하고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 시민의 필수적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반영은 이제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민주 시민의 탄생이며, 이를 위하여 '토론' 과정은 필수적이다.

'토론'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증진을 위한 실천의 형태는 여러 영역에서의 연구와 국가별 차이가 확인되지만 토론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능동적인 시민들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고 그중의 핵심교과가 '토론'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문제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방법론이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누가 전달하는 것이 실천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토론'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토론'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학교 교육에 새로운 독립 교과를 편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중 매체의 영향력으로 인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소통과 정보수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토론 교육의 경우는 기존 과정에 편입되는 유형도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할 필요성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 활동 등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각 주체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게 고려되어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재 한국은 지능정보사회로 들어섰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토론'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체는 크게 초·중·고 교강사, 시민단체 활동가, 학계 연구자, 정책기관 담당자, 미디어 산업 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교육, 기반구축, 규제 및 협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토론 교과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협력과 참여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미디어교육 영역에서의 '토론' 교과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선거방송토론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2) 토론 형식 연구

선거방송토론회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하여 토론회의 형식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고 선진적인 토론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생과 초중고, 일반인의 토론대회의 형식은 20년간 동일하여 다양한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기관과 학계의 참여가 요청된다.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이제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국의 선거방송토론 형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시간, 후보자 수, 발언 시간 등의 기계적인 균형과 공정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안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선거방송토론회의 형식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드시 유권자, 시청자에게 향한 열린 구조로 새롭게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 이종희는 한국의 선거방송토론 제도는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한국의 토론 문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011)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의미 있으며 한편으로 선거방송토론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대목이다.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망

대한민국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업적은 매우 중요하고 탁월하다. 하지만 한국이 지능정보사회로 편입되고,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디어의 변화는 눈부시다. 이제 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방송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통신 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화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토론위원회로 명칭을 바

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방송토론회의 주관, 토론대회 개최의 기능을 넘어서 수용자, 유권자 나아가 국민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곧 미디어 교육이며, 미디어 교육의 핵심은 **열린 토론**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효율적 개최와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정당,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전문기관으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 강우진·배진석 (2018). TV토론의 투표선택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대한정치학보*, 26(2), 155-180.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형구 (2006). 한·미텔레비전 토론의 비디오 스타일 분석.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학술대회 논문집*, 19-49.
- 권혁남 (2006). *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정·진홍근 (2018). 19대 대선 후보의 정치광고 효과 연구: 주관적 지식과 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0(4), 23-44.
- 김하나 (2016). 정당광고가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8(3), 120-140.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박권일 (2019). *정치광고와 TV토론의 의제 설정 효과*. 부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대영 (2018). 유튜브 정치동영상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학습효과. *교육문화연구*, 24(1), 97-115.
- 이강형 (2003).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유사실험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827-324.
- 이남기 (2001).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수사학적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철 (2002). *선거토론과 민주주의: 토론, 텔레비전, 선거, 대통령 그리고 유권자*. 서울: 한국영상산업진흥원.
- 이수범 (2018). 제17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의 설득 전략 연구. *선거연구*, 8, 37-57.
- 이종수 (1997). TV토론회 개선할 점 많다. *저널리즘비평*, 22, 6-11.
- 이종희(2011).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준웅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1), 253-297.
- 이준웅·김관규·구교태·최민석 (2006). 바람직한 선거방송토론 모형 개발. *한국언론학회연구보고서*, 한국언론학회, 1-103.
- 이진로 (2002). *한국대통령선거의 TV토론 포맷 연구*. 2002년 한국언론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5-529.

- 임태섭 (2000). 텔레비전 토론의 포맷과 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9, 198-224.
- 전영란 (2007). TV토론에 나타난 선거캠페인 수사에 관한 분석.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정성호·이화행 (2006).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3), 63-88.
- 차영란 (2018).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투표행태와 정치캠페인 및 정치광고에 대한 수용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8(6), 385-398.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유권자가 바라보는 선거보도, 미디어이슈, 22(1), 1-10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0년사.
- Benoit, W. L., & Harthcock, A. (1999). Fuction of the great debates: Accliams, attack and defenses in the 1960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is, 66, 341-357
- Druckman, J, N. (2005). Does Political Information Matter Political Communication, 22(4) , 180-201.
- Jamieson, K, H. (1987) Television, Presidential campaign, and debates. Washington, D. C : Congressional Quarterly.
- Kraus S. (2000). Televised presidential dabate and public police. Mahawah, NJ: LEA publisher.
- Lasarsfeld, P, F., B. (1948) The People's Choice. N.Y. Columbia Univ. Press.
- Riley, P., Holliha, T. A. (1981) The 1980 presidential debates: A contents analysis of the issues and argument. Speaker and Gavel, 18, 114-128

## 〈 Q 진술문 〉

번호	진술문
1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였다.
3	TV토론회는 후보자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TV토론회는 선거에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6	TV토론회를 통해 지지후보를 유지하였다.
7	TV토론회는 파괴력이 있다.
8	TV토론회는 치열한 공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9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14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
15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메시지가 명료하였다.
1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하였다,
1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
19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철학을 확인하였다.
20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22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23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24	TV토론회는 형식에서 지루하였다.
2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6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2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2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 〈 유형별 P 표본의 구성 및 특성 〉

유형	P번호	요인가중치	나이	성별	직업	시청회차
제1유형 (N=12)	3	0.7569	남	55	사업	1/2
	4	1.9675	남	50	교직원	1/2
	5	0.9703	여	40	주부	1/2
	7	0.4716	여	44	직장인	1/2
	8	1.6112	남	45	공무원	1/2
	9	0.5096	남	45	자영업	1/2
	10	0.5776	남	63	교직원	1/2
	12	1.6579	여	50	주부	1/2
	13	0.3296	남	56	교직원	1/2
	15	1.6082	여	49	교직원	1/2
	19	1.3439	남	40	연구원	1/2
	20	1.4241	남	50	자영업	1/2
제2유형 (N=5)	06	0.6023	남	52	연구원	1/2
	11	2.0042	남	49	교직원	1/2
	14	0.5617	남	55	교직원	1/2
	16	1.6560	남	30	대학원생	1/2
	22	1.1755	남	55	사업	1/2
제3유형 (N=3)	1	1.1285	여	39	주부	1/2
	2	1.4300	남	39	자영업	1/2
	21	0.7119	여	49	직장인	1/2
제4유형 (N=2)	17	1.0126.	남	27	대학생	1/2
	18	0.9643	남	28	대학생	1/2

[표 1] 제1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1.28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27
24	TV토론회는 형식에서 지루하였다.	1.26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41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28
20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01
23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29
3	TV토론회는 후보자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4
7	TV토론회는 파괴력이 있다.	-1.49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2.06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2.15

[표 2] 제2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Z-score ≥ |±1.0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82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36
14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	1.35
19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철학을 확인하였다.	1.34
1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하였다,	1.30
1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1.13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00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1.08
4	TV토론회는 선거에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1.30
2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1.38
23	TV토론회의 후보자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39

[표 3] 제3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Z\text{-score} \geq |\pm 1.00|$ )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
3	TV토론회는 후보자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
2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였다.	1.27
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1.11
14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에 도움이 되었다.	1.02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02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11
25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1.11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33
20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52
4	TV토론회는 선거에서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1.98

[표 4] 제4유형의 Q 표본과 표준점수( $Z\text{-score} \geq |\pm 1.00|$ )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1.83
17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을 확인하였다,	1.83
1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인격을 확인하였다.	1.22
1	TV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2
12	TV토론회를 통하여 지지하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1.22
26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1.20
3	TV토론회는 후보 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1.22
23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주장은 삶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주었다.	-1.22
21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준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1.53
13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1.83

[표 5] 유형 간 공통된 Q 표본과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8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0.78
9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0.20
20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신감을 확인하였다.	-0.94
23	TV토론회는 후보자지지율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1.19